

사립유치원 사태 2라운드

“유치원 3법 막으려 정치권 불법로비”... 검찰에 고발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조사 발표
학부모 교육비로 엉뚱한데 ‘평평’
단독방서 유치원 휴업·폐업 조장
한유총 “휴업 독려·로비 사실무근”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유총 관계자들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회비로 냈고, 이를 한유총이 엉뚱한 곳에 평평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휴업·폐업을 독려하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에 불법 조끼 후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월 12일~21일 까지 8일간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한유총은 소속 사립유치원 회원 3173명 대다수가 유아교육에 직접 사용해야 할 학부모 부담 교육비 회계에서 한유총 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육비가 한유총 회비로 납부된 금액은 연간 30억1435만원~36억489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교육청은 “한유총 회원은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포함해 1인 연평균 95~115만원 내외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고, 지난해 1~2월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나타난 교비회계에서 회비 납부(사적 사용)가 확인된 점,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동일 사례가 확인돼 보전 조치한 바 있는 등을 종합해 회원 대다수가 회비를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조성된 회비도 부적절하게 사

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과세업자에게 물품·용역비 등을 지출하면서 54건, 3억5453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이 중 특정 이사 소개로 8~9년 전부터 거래한 특정 업체와 29건(1억4404만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사장 관공비(1억3800만원), 자문료 등 76건(5422만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 강의료와 지회교육비 200만원이 적정 수령인이 아닌 이사장과 서울지회장에게 지급됐다.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지회육성비는 이사장과 지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됐으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지급

된 지회육성비가 다시 법인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의 횡령·배임의 정황이 드러났다.

법인 회비는 공금으로 비록 단체에 속하는 회원이나 회원의 대표라 할지라도 개인적 판단이나 이해관계로 회비를 사용하거나 변통할 수 없으며, 오직 단체 목적과 전체 회원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또 회원에게 언제나 거래내역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하지만, 한유총은 회계장부나 세무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회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립유치원 회원들에게 “전국 폐원 모두 동의해 주세요. 학부모가 벌떼같이 일어나야... 전국 동시 폐원. 그게 바로 학부모가 벌떼같이 일어나는 길...”이라며 학부모를 동원해 휴업과 폐원을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회원 3000명이 있는 단독방에서 회원들에게 정치자금법 제11조에 의한 기부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의 후원 금액(10만원 정도)과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제시해 후원금 입금을 독려했고, 실제 회원들이 후원금을 입금했으나, ‘불법 조끼기 후원’ 문제가 불거지지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후원금을 돌려준

정황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덕선 위원장 등 한유총 임원 5명에 대해 공금 유용, 횡령, 배임과 ‘불법 조끼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계 부정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0일 상근직원 전원이 퇴직함에 따라 업무단절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다만 대다수 회원이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회비로 납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정에 불과하며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 보인다”며 “연합회 회비는 지회에서 수납해 총회로 입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회비 납부 형태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치원 휴업·폐원을 조장하거나, 야당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부정했다. 한유총은 “단체대화방은 주인이 없는 곳으로 지시가 가능하지 않다”며 “설령(서울시교육청이) 열거한 내용들이 연합회 소속 회원이 했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주장일 뿐 연합회가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설 연휴는 그림의 떡’ 알바생 70% 일한다

알바몬 아르바이트생 1893명 설문
유통·판매)외식업)서비스업 順

알바몬이 10명 중 7명은 올해 설 연휴 기간 중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0%는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알바몬이 알바생 18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3%는 ‘올해 설 연휴에 정상근무한다’고 답했다.

설 연휴 기간 정상근무를 한다는 답변은 편의점과 백화점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유통·판매(79.3%) 아르바이트가 가장 높았다. 이어 △외식·음료(76.5%), △서비스(73.4%), △문화·여가·생활

(66.7%) 업·직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설 연휴 근무자 중 68.0%가 설 당일인 2월 5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근무자 5명 중 2명(40.9%)은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장·사무실이 정상 운영해 어쩔 수 없이 근무한다’는 응답자(56.0%)가 이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설 연휴 근무조건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설 연휴 근무 시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소와 비슷하거나 같다’(73.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5.9%만 평소보다 시급을 더 받는다고 했다. 근무시간은 ‘평소와 비슷하거나 같다’(52.6%)가 가장 많았고, ‘평소보다 많은 시간 일한다’(39.5%)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용수 기자

왕숙 등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교산·계양테크노벨리·과천지구 등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4곳에 조성

수도권 4곳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이 100% 설립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교육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2018년 9월 21일)’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로,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이 해당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등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NE능률, ‘워라벨’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올해부터 집약근무제 정규제도화



NE능률 본사에 위치한 카페형 공간 ‘V라운지’

종합교육서비스기업 NE능률은 올해부터 집약근무제를 정규제도화하고, 월 단위 집약근무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NE능률은 지난 2002년부터 교육콘텐츠 개발 등 일부 직군에 한해 유연근무제를 운영해왔다. 2017년부터는 임직원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지원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유연근무제 프로그램 중 하루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제한 없이 주간 근무시간(40시간)만 준수하면 자유롭게 출퇴근

할 수 있는 집약근무제를 집중 확대할 방침이다.

집약근무제는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하며 직원의 48%까지 이용 인원을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정규제도화해 직원의 63.6%가 이용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중앙대 ‘ABN국제학술대회’ 2020년 동아시아 최초 유치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2020년 열리는 ‘제7회 Asian Borderlands Research Network’(이하 ABRN) 국제학술대회 개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ABRN은 아시아의 접경공간을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격년제 국제학술대회다. 해당 학술대회는 네덜란드 교육부가 설립했으며, 레이던 대학교가 운영하는 IIAS와 아시아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2018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제6회 학술대회가 개최됐으며, 2020년 동아시아 최초로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학가 소식

손대중 건국대 외국인학생센터장 국제교육자협회장 선임

건국대학교는 손대중 외국인학생센터장(사진)이 지난 23일 제21회 한국국제교육자협회(KAIE)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31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손대중 회장은 국제교육분야 전문가로 한국국제교육자협회 부회장과 이사 등을 역임했다. 국제교류와 유학생유치 등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건국대 국제처 외국인학생센터장을 맡고 있다.



동국대 환경미화 근로자 직접고용

동국대(총장 한태식)가 서울캠퍼스 미화근로자 97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국내 사립대학이 용역업체 미화원들을 대규모로 직접 고용한 사례가 적었던 만큼, 앞으로 동국대의 직접고용 사례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31일 동국대에 따르면, 전날(30일) 오후 3시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직접 고용 전환 미화원을 대상으로 직원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근로자들은 기존 용역계약 종료일의 익일인 내달 1일부터 동국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미화원들의 정년은 65세다.

/한용수 기자